

◇우심실 유출로 재건술시 단엽 동종이식 판막편의 역할

전태국, 박표원, 황경환, 박계현, 채현

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팔로사징 및 폐동맥판폐쇄 환자 수술시 자가 혹은 소심낭편등을 이용한 단엽판막의 삽입은 수술직후 폐동맥판막 부전증 예방에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본 연구자들은 단엽 동종이식 판막을 이용하여 우심실 유출로 재건술을 시행한 바, 단엽 동종판막이 술후 폐동맥판막 폐쇄부전증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96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단엽 동종이식판막을 이용하여 우심실유출로 재건술을 시행받은 환자 17명(팔로사징 9, 폐동맥판 발육부전증 5, 폐동맥판 협착 및 폐쇄부전 3)을 대상으로 술전후 및 외래에서 시행한 심에코상 나타나는 폐동맥판 폐쇄부전증의 정도를 비교 분석 하였다.

결과 : 수술직후 심에코상 중증이상의 폐동맥판 폐쇄부전증이 관찰되는례는 1례였다(6%, 1/17). 17례중 12례는 술후 6개월 이상 추적 관찰 하였으며, 이중 2례에서(17%, 2/12) 중증이상의 폐동맥판 폐쇄부전증이 관찰되었다. 또한 18개월이상 관찰이 가능했던 7례중 2례에서(28%, 2/7) 중증 이상의 폐쇄부전증이 관찰 되어, 총 4례(24%)에서 중증이상의 폐쇄부전증이 관찰되었다. 동종이식 판막편의 움직임은 18개월째 움직임이 둔화된 1례를 제외하고 16례에서 양호한 움직임을 관찰 할 수 있었다.

결론 : 우심실유출로 재건술시 사용된 단엽 동종이식판막편은 수술직후 폐동맥판막 폐쇄부전증 예방에 효과적이며, 술후 18개월 까지 그 기능이 잘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. 향후 장기적인 기능 판단을 위한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.

책임저자:박표원(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
 발표자:전태국, (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)